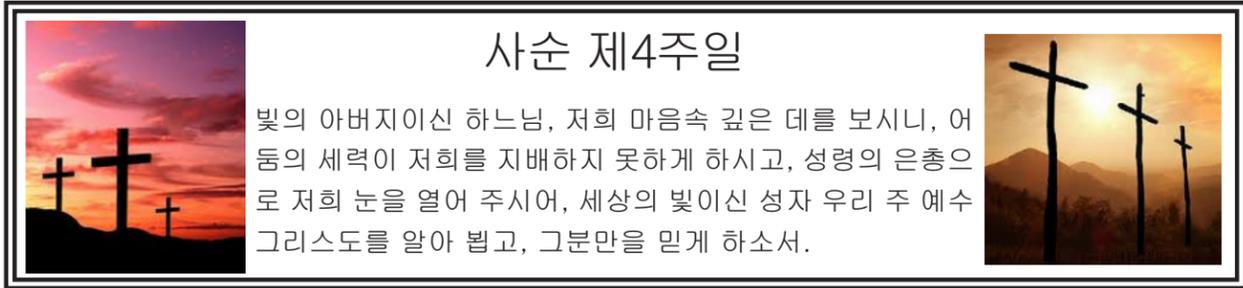


공동체 소식



3월 기도지향

- 안동현(프란치스코), 지은경(리브가) 가정
- 정수한(베드로), 김주연(세실리아) 가정

4월 기도지향 가정 : 김정원(베드로), 박말자(세실리아) 가정 / 김정환(요한), 윤유나(글라라) 가정

성 요셉 성월

교회는 해마다 3월을 '성 요셉 성월'로 지내고 있습니다. 성 요셉 성월은 성모 마리아의 배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양아버지인 요셉 성인을 특별히 공경하고 그분의 삶을 묵상하는 달입니다. 요셉 성인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신 약혼자 마리아를 주님의 뜻에 따라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하느님의 구원 사업의 협력자로 삶을 바치셨습니다.

사순시기 운동

- 성경 필사 : 시편
- 구역미사 및 판공
- 사순 특강

예비자 집중 교리

- 일시 : 3/23(일) ~4/13(일) 중심미사 후
 - 장소 : 성당
 - 세례식 : 4/19(토) 오후 8시 예정(유아세례 포함)
- 세례 대상자들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례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역 미사와 판공 일정

- 1구역 : 4/12(토) 오후 7:30 정석원 라파엘 댁
12317 W. 102nd St. Lenexa
 - 2구역 : 4/11(금) 오후 7:30 차호섭 요셉 댁
331 SE. Wood Ln. Lee's Summit
 - 3구역 : 4/5(토) 오후 7:30 안동현 프란치스코 댁
14317 Hadley St. Overland Park
- 미사를 시작으로, 고해성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묵주기도를 바치겠습니다. 미사 후,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진성사 축하

지난 **금요일(3/28)**, 건진성사를 통하여 저희 공동체 15명의 형제 자매님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총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공동체 모두가 마음을 모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교리 동안 수고해주신 전례부와 특송을 준비한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미사 후, 축하식과 선물 증정이 있습니다.

기타

- 4월 달 신심미사는 구역미사와 판공 관계로 없습니다.
- 부활대축일 꽃봉헌을 받습니다. 전례부에 문의 바랍니다.

전례 성가

시 작	예 목	성 체	마 침
117	210	168/170	122

주일미사 복사

	향 복사	시중 복사
금주	정수한(베 드 로) 차호섭(요 셉)	정예찬(미 카 엘) 차서은(세라피나)
차주	정준구(파비아노) 이우영(가브리엘)	이원준(요 한) 김준영(요 셉)

전례 봉사자 및 독서자

	해설자	제1독서 제2독서
금주	김주연(세실리아)	홍순익(마르티노) 최은미(아 네 스)
차주	박혜정(카타리나)	김정원(베 드 로) 박말자(세실리아)

애찬 봉사자

금주	최선윤, 김수연, 서정애, 정선식
차주	김시연, 김말자, 배복선, 신혜경, 조경희

헌금 봉사자

금주	문석찬(요 셉), 최은미(아 네 스)
차주	김태중(예레미야), 정수한(베 드 로)

우리들의 정성

	참례인원	헌금	교무금
3/23	71명	318불	400불
유길수, 정지현			

캔사스한인천주교회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Kans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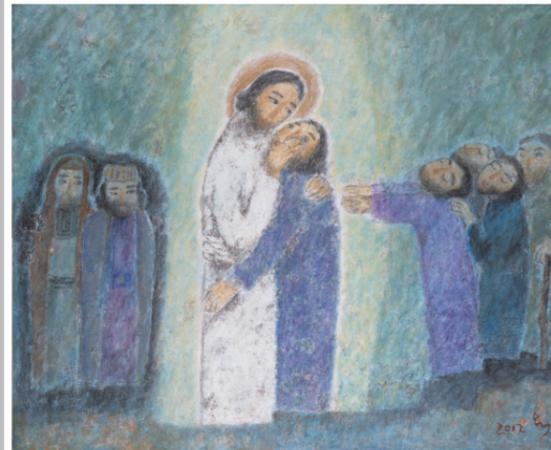
9130 Pflumm Rd. Lenexa, KS 66215
(913)563-7896 www.kckcatholic.org

주보 편집 : 김원철 바실리오 412.576.5075 willkim777@gmail.com

주임신부 주영길 토마스
M: 913.633.1273
jooyk88@gmail.com
회 장 홍순익 마르티노
M: 913.486.4204
부 회 장 김태중 예레미아
M: 913.963.7521
재 무 차호섭 요셉
M: 614.598.7908
hscha72@gmail.com

미사시간
주 일: 11:00 AM
화요일: 7:00 PM
목요일: 10:00 AM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전
예비자교리
주일 10:00 AM

오늘의 전례



오늘은 사순 제4주일입니다. 교회는 오늘 전례에서 부활의 기쁨을 미리 맛보는 기회를 갖습니다. 입당송에 나오는 ‘즐거워하여라. 예루살렘아.’라는 성경 말씀에 그 정신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기쁨은 희생과 극기를 실천하며 주님의 수난의 길에 기꺼이 함께하려는 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입니다. 이 거룩한 미사를 통하여 사순 시기에 요구되는 우리 신앙인의 자세를 더욱 새롭게 하도록 합시다.

성화해설

빛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나를 보내신 분의 일을 우리는 낮 동안에 해야 한다. 이제 밤이 올 터인데 그때에는 아무도 일하지 못한다.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나는 세상의 빛이다.” (요한9,4-5)

어둠은 죄와 죽음이며, 빛은 아름다움이고 생명인 하느님 자신입니다. 빛과 어둠은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빛과 어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빛 가운데 서 있을 수 있도록 빛이신 분께 우리 자신을 내어맡깁시다.

그림 김옥순 수녀 | 성바로말수도회

제 1 독 서 : 1사무 16,1-7.10-13 < 다윗이 이스라엘 임금으로 기름부음을 받다. >



◎ 주 님 께 서 는 나 의 목 - 자 아 쉬 울 것 없 노 라

○ 주님께서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파아란 풀밭에 이 몸 누여 주시고, 고이 쉬라 물터로 나를 끌어 주시니, 내 영혼 싱싱하게 생기 돌아라. ◎

○ 주님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를 간다 해도, 당신 함께 계시오니 무서울 것 없나이다. ◎

○ 당신의 막대와 그 지팡이에 시름은 가시어서 든든하외다. 제 원수 보는 앞에서 상을 차려 주시고, 향기름 이 머리에 발라 주시니, 제 술잔 넘치도록 가득 하외다. ◎

○ 주님께서 당신 이름 그 영광을 위하여, 곧은 살 지름길로 날 인도하셨어라. 한 평생 은총과 복이 이 몸을 따르리니, 오래오래 주님 궁에서 사오리다. ◎

제 2 독 서 : 에페 5,8-14 <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비추어 주시리라. >

복음환호송 : ◎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이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

복 음 : 요한 9,1-41 <또는 9,1,6-9.13-17.34-38> <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앞을 보게 되어 돌아왔다. >

쉐 마

“우물가로 갑시다”



지난 삶을 돌아보면 여러 차례 실로암에서 눈이 뜨이는 체험들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고 또 다시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의 시간으로 돌아가기를 몇 번을 거듭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느님께 멀어졌다가 당신의 자비하심으로 눈을 뜨고 주님을 믿게 되기를 반복하리라 믿습니다.

스물에 대학에 입학하면서 서울 유학생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20대가 겪게 되는 삶에 대한 질문과 해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을 저도 나름 겪었습니다. 공부, 연애, 운동, 성당활동 등 답을 찾고자 부단히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20대 초반을 보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 이리 저리 부딪히고 상처가 난 저에게 하느님께서 오셨습니다. 눈 똑바로 뜨고 바른 길 갈 수 있게 제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20대 중반에 저는 ‘사제가 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회 성소자가 되었습니다.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2년여 한 뒤에 저는 입회를 했습니다. 20대 중반 어느 날 제게 오셨던 예수님을 잊지 않고 줄곧 수도 사제의 성소를 생각했습니다. 눈이 멀어 이리저리 헤매던 제게 빛을 비춰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서른에 예수회라는 수도회에 입회를 했습니다. 수도생활을 통해 더 눈이 맑아지고, 멀리, 깊게 보며 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 눈은 시력을 잃어갔습니다. 신학 공부를 외국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가기 전에 외국어 학원을 다녔습니다. 그곳 학생들은 제가 가톨릭 수사인지 몰랐습니다. 말을 해도 뭔지 몰랐습니다. 언제 결혼하냐고 묻곤 했습니다. 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 몸과 마음이 처지는 것입니다. 외국어 공부가 힘들어서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성찰을 해보니 6년 동안 교회 울타리 안에서 ‘수사님’이란 말과 수녀님과 신자 분들의 환대에 빠져 제 본분을 망각했습니다. 제가 잘 나서 사람들로부터 존경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에 깁스를 엄청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아무도 제게 ‘수사님’이라고 해주지 않는 것입

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머리로는 겸손하고 가난한 수도자로 살아야지 했지만, 몸과 마음은 6년 동안 부유함에 젖어 있었습니다.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어디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것입니다. 외국 유학을 준비하며 하느님께서 다시 제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다시 알아듣고, 주님을 믿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마흔에 사제가 되었습니다. 부제품을 앞두고 한 달 동안 예수회 사제직에 대한 워크숍을 했습니다. 전반부에는 예수회원과 함께 일하는 수녀님, 신자 분들께서 오셔서 당신들의 체험을 나눠주셨습니다. 당신들이 바라는 예수회 사제에 대해서 진심을 담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여섯 나라에서 온 우리 수사들은 말씀을 듣고 각자 나라의 상황에 비추어 어려움들, 희망들을 또 나눴습니다. 그렇게 2주가 끝났을 때, 저는 무척 무서웠습니다. 제가 사제가 되어 제대에, 강론대에 선다는 것이 너무나 바라던 일이었는데, 그때는 너무 두렵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사제가 되어 신자들 앞에 서는구나, 내가 그만큼 역량이 되나? 준비가 되었나? 이렇게 두려움에 떠는 저를 하느님께서 꼭 끌어안아 주셨습니다. 후반부에는 피정을 했는데, 피정 동안 불안하고 두려웠던 제 마음을 주님께서 완전히 녹여주셨습니다. 제 과거의 순간 순간을 보여주시며 저를 얼마나 아끼셨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두려움에 싸여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빛을 보여주셨고, 저는 제 삶 구석구석을 보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지점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 모든 시간에 당신께서는 제 눈을 열어 당신을 보도록 빛과 사랑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는 눈먼 저를 몇 번이고 뜨게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저의 어리석음, 게으름, 죄 때문에 눈이 멀 때마다 계속 눈뜰 수 있게 은총 허락소서!

- 예수회 김동일 신부 -

마중물

빵과 이스트

러시아 출신의 신비주의자 구제프가 프랑스에서 영적 공동체를 만들었을 때의 일이다. 이 공동체에는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는 노인이 한 사람 있었다. 노인은 참을성도 없고, 지저분했으며, 걸핏하면 주위 사람들과 싸우려고 들었다. 청소도 하지 않을뿐더러 남의 일을 거들어 주려고도 하지 않았다. 입을 열면 매번 비난과 불평뿐이었다. 그 결과 그는 누구와도 사이좋게 지낼 수 없었다.

몇 달 동안 공동체의 생활에 적응하려고 노력했으나 노인은 결국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래서 그는 짐을 꾸려 파리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노인이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구제프는 당장 뒤따라서 노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리고는 노인에게 다시 공동체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리 설득해도 노인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마침내 구제프는 그에게 다시 공동체로 돌아온다면 매달 많은 액수의 보수를 주겠다고 제의했다. 지금까지

누구도 들어보지 못한 파격적인 제의였다. 그런 제의를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노인이 다시 공동체로 돌아오자 다들 놀랐다. 게다가 그가 다달이 높은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 모두가 불만을 느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매달 비싼 돈을 내면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만 일으키는 쓸모없는 노인이 돈까지 받아가면서 그곳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

사람들의 불만이 심각해진 것을 보고, 어느 날 구제프는 공동체의 회원들 모두를 한 자리에 불러 모은 뒤 말했다.

“이 노인은 빵에 넣는 이스트와 같다. 그가 이곳에 없다면 그대들은 진정으로 배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를 통해서 그대들은 분노에 대해, 조급함에 대해, 그리고 이기심과 자비심에 대해 배우고 있는 중이다. 바로 그런 것들을 배우기 위해 그대들은 내게 돈을 내는 것이고, 난 그 돈으로 이 노인을 고용한 것이다.”

‘신앙의 해’ 교육자료

제 9절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나이다.



95. 교회는 왜 거룩합니까?

교회는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거룩합니다. “교회는 흠 없이 거룩하다고 믿어진다.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 ‘홀로 거룩하시다’고 칭송받으시는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삼아 사랑하시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당신 자신을 내어 주셨으며, 교회를 당신과 결합시켜 당신 몸이 되게 하시고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의 선물로 가득 채워 주셨기 때문이다”(교회헌장, 39항). 그러므로 교회는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그 구성원들은 “성도(聖徒)”라고 불린다(가톨릭교회교리서 823 참조).

교회는 거룩하면서도 끊임없이 쇠신 되어야 합니다.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죄를 모르셨지만 오로지 백성들의 죄를 없애러 오셨으므로, 자기 품에 죄인들을 안고 있어 거룩하면서도 언제나 정화되어야 하는 교회는 끊임없이 참회와 쇠신을 추구한다”(교회헌장, 8항). 성직자들을 포함한 교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 끝 날까지 모든 사람 안에 죄의 가라지와 복음의 좋은 씨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손길에 붙들렸지만 아직은 성화의 길을 가야 하는 죄인들을 불러 모읍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827항 참조).

- 『저는 믿나이다』, 청주교구 복음화 연구소, 2012 -